



보도자료	
배포일시	2024.8.29.(목)
배포부서	홍보팀 (02-3219-5111~5112)
자료문의	확산방지팀 서경원 팀장 (02-3219-5810)
	통신심의기획팀 최승호 팀장 (02-3219-5120)
이 자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(www.kocsc.or.kr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	

방통심의위, 텔레그램 CEO 수사 프랑스 당국에 '긴급 공조' 요청
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(위원장 류희림, 이하 '방통심의위')는, 텔레그램 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 요청을 보냈다고 29일(목) 밝혔다.
- 방통심의위는, 텔레그램 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 24일 체포하고, 구금했다가, 현재 수사 중인 프랑스 수사당국측과 접촉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해졌다며, 이같이 밝혔다.
- 방통심의위는 우선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,
 - ▲텔레그램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줄 것과, ▲향후 텔레그램 문제에 관련된 상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긴급 요청했다.
 - 이 서한에서 방통심의위는, ▲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설명하고, ▲구체적인 범죄유형을 적시하면서, 22만 명이 연루된 이 범죄의 주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강조하며, 긴급 공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.

- 방통심의위는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접촉 채널이 확보된 만큼,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,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서한은 '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'에 따른 후속 조치로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를 위한 단계적 조치의 일환이다.